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관찰카메라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채널A아침뉴스 50 웰컴 투 시월드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30주년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튼튼 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웰컴 투 돈월드	00 대한민국 행복발전소(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인간극장 스페셜 (재)	00 특집다큐멘터리 〈영상콘서트 지구촌 2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 뉴스 2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KJB배 KBC 고교동문 골프대회(재)
1	00 뉴스 특보 1~2부	00 바른말 고운말 05 문화책갈피 45 긴급출동 24시	10 문화의 달 걸작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4부〉(재)	25 통일 전망대	30 엄마랑 아빠랑 지구 한바퀴 스페셜
2		20 인문강단 락(樂)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5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명랑해결단(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미니미니(재) 25 구름빵(재) 55 TV유치원(재)	00 MBC 경제 뉴스 10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10 생활의 달인(재)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을 잇는 담쟁이 55 튼튼 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맘마미아	00 똑? 똑! 키즈스쿨 30 도비도비	00 아이엠 몽니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특집다큐멘터리 〈삶은 디자인〉	05 토크콘서트 〈화통〉
7	2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드라마 〈루비 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8	3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1 대 100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장 21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	00 월화특별기획드라마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심장이 뛴다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머니타워(재)	30 국악의 향기 ①:10 생활의 발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①:50 MBC 플러스 특선 쇼 챔피언	35 나이트라인 ①:05 아구본색 55 더 쇼

EBS

06:10 세계의 눈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브루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9:05 시계마을 티키톡
09:20 부모
10:00 한국기행 〈강화〉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임효숙의 내몸을 위한 소중한 식사 -고추장 바비큐 폭립〉
11:20 세계테마기행 〈흑해〉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e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3:20 천하무적 한자 900
13:3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3:45 바두와 친구들
14:00 잘난 체리우스 박사님
14:15 팅가팅가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5:45 와글와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6:4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앤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보니하니
19:30 두키 탐험대
20:00 EBS 뉴스
20:20 명의의 건강비결 〈우리 몸의 중심을 잡다 척추 전문의, -윤도흠 교수1〉
20:50 세계테마기행 〈천상의 왕국을 찾아서, 부탄 2부 -황금 랑구르와 블랙야크〉
21:30 한국기행 〈조도〉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장수의 비밀
23:15 세계의 눈
24:05 지식채널e
24:10 세계명작극장

EBS플러스1

00:0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01:00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01:40 내신6감 〈일반사회〉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03:20 〃 〈독서와 문법〉
04:10 〃 〈수학Ⅰ A형〉
05:00 〃 〈수학Ⅰ B형〉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10:00 〃 〈경제〉
10:50 〃 〈한국사(1)(2)〉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00 탐스런 〈한국사(3)〉
14:00 인터넷 수능 〈독서·문법·화법·작문(A)〉
15:00 〃 〈독서·문법·화법·작문(B)〉
16:00 〃 〈문학(B)〉
17:00 〃 〈독해(B)〉
18: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국어B형〉
19:00 〃 〈영어A형〉
20:00 〃 〈영어B형〉
21:00 〃 〈수학A형〉
22:00 〃 〈법과 정치〉
23:00 〃 〈생활과 윤리〉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강좌
07:30 김주영의 행복한 음악 읽기
08:00 매경TEST 시험 대비 강좌
08:30 요리비전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09:10 중학 1학년 〈국어①②〉
09:50 〃 〈수학① (상)〉
10:30 〃 〈수학① (하)〉
11:10 〃 〈역사①〉
11:50 중학 2학년 〈영어2-2〉
12:30 〃 〈비문학2〉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15:10 EBS 초등 내공 냠냠
15:40 〃 〈수학 3-2〉
16:10 〃 〈수학 4-2〉
16:40 〃 〈수학 5-2〉
17:10 스쿨랜드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영어〉
18:00 〃 〈과학〉
18:40 원더풀 싸이언스(3)(4)
20:20 EBS 문화사 시리즈 〈100인의 증언, 60년대 문화를 말한다〉
21:20 등업신공 〈과학①-2〉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사회〉
22:40 중학 3학년 〈영어〉
23:20 〃 〈비문학3〉
24:00 예술의 광장

한국영화 주춤…11월 돌풍 일으킬까

'동창생'·'노브레싱'·'더 파이브' 등 줄줄이 개봉 대기

가을 극장가에 흥행 돌풍이 불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관상'의 900만 흥행 이후 극장가에는 뚜렷한 열기가 감지되지 않는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0월 초 개봉한 '소원'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가 각각 250만, 220만 관객을 동원하며 꾸준히 흥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영화 모두 개봉 3~4주차를 지나면서 시장점유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24일 개봉한 손예진 주연의 '공범'이 박스오피스 1위로 뛰어올랐지만 개봉 첫날 11만4570명을 모으는 데 그치며 예매율도 15% 안팎에 머물고 있다.

김기덕 감독 제작, 엠블랙 이준 주연의 '배우는 배우다'와 박중훈의 감독 데뷔작 '톱스타'도 24일 개봉했지만, 큰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배우는 배우다'는 언론과 평단의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개봉 첫날 2만250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톱스타' 역시 개봉 첫날 2만3520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6위에 머물렀다.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으로 관심을 끈 '롤러코스터'는 1주일간 23만여 관객을 모았지만, 개봉 2주째에는 박스오피스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주춤한 상황이다. 17일 개봉한 천정명·김민정 주연의 로맨틱코미디 '밤의 여왕' 역시 1주일간 23만여 명밖에 모으지 못했다.

한국영화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사이 할리우드 SF 영화 '그래비티'가 평단과 대중에게 호응을 얻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개봉한 우주 재난 영화 '그래비티'는 1주일간 10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으며 할리우드 영화로는 오랜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그래비티'는 영화 자체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다 할 한국영화 경쟁작이 없어 당분간 박스오피스 상위권에서 흥행을 지속할 전망이다.

10월 한국영화들의 흥행이 부진함에 따라 11월 개봉되는 한국영화 작품들이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승현(빅뱅 탑) 주연의 '동창생'이 11월 6일 개봉해 이달 30일 개봉하는 이종석·서인국 주연의 '노브레싱'과 함께 여성 관객 공략에 나선다.

김선아 주연의 액션스릴러 '더 파이브'와 곽경택 감독이 절치부심해 만든 김우빈·유오성·주진모 주연의 '친구 2'가 11월 14일 동시 개봉해 맞붙는다.

10월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킨 영화가 없었던 터라 한국영화에 대한 대기수요가 11월 흥행작으로 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용준형, 토크쇼 발언 위증혐의 피소

KBS '승승장구'…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지난 1월 폐지된 KBS 2TV 토크쇼 '승승장구'가 한 게스트 출연자의 발언 때문에 정정보도 소송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을 한 그룹 비스트의 용준형(24)도 이에 휘말려 위증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 프로그램에서 용준형이 전 소속사와의 갈등을 묘사하며 "대표가 병을 이렇게 (쳤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용준형이 지목한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해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까지는 증명하지 못했다며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다.

용준형은 소송 진행 중에 "방송 내용은 사실"이라는 요지로 증언했고, 김 씨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그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용준형은 위증 피소 건에 대해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와 KBS 사이의 법적 분쟁은 당사자가 1심 결과에 모두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KBS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음 9월 25일 戊辰)

子 36년생 예리한 관점으로 임해야겠다. 48년생 통일된 감각이 필요할 때다. 60년생 과실이 열렸으니 따는 사람이 임자다. 72년생 상호 간에 이해가 부족하다. 84년생 불가능하다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44

丑 37년생 속단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49년생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자. 61년생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니니 지체하지 말라. 73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보면 부담스러워진다. 85년생 투명해야 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7, 38

寅 38년생 만반의 준비 하에 실천해야 효과를 본다. 50년생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도다. 62년생 무리하게 행하려 한다면 하지 않음만 못 하다. 74년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61

卯 39년생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펴라. 51년생 기다려왔던 것을 실행해야 할 적기이다. 63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75년생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7, 26

辰 40년생 다양한 방법의 계발은 생산성을 높인다. 52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64년생 일관되게 지속한다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76년생 솔선수범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2, 52

巳 41년생 급속하게 진행하다가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 53년생 대범한 행동을 보일 때다. 65년생 중지를 모았을 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77년생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1, 10

午 42년생 주관대로 밀고 나아가자. 54년생 과감하게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66년생 지나온 일보다 앞일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78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맹점을 찾아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0, 71

未 43년생 집착을 떨쳐버렸을 때 오히려 다방면의 득이 있다. 55년생 환경에 지배 받지 말고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라. 67년생 막연히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79년생 난처한 입장이 되는 모습이니라. 행운의 숫자 : 53, 68

申 44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다. 56년생 제대로 궤뚫고 있어야 한다. 68년생 악의가 없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도 좋다. 80년생 의외로 앞당겨져서 진행 될 수도 있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64, 15

酉 45년생 차선책을 강구해 둬야겠다. 57년생 이익이 보이니 주저하지 말고 밀어 붙이자. 69년생 예감이 적중하는 신기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기대했던 것들은 순조롭게 들어오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7, 19

戌 46년생 급한 일이 생겼으니 즉시 연락해 봐야겠다. 58년생 의욕에 앞서서 치밀함이 필요한 입장이다. 70년생 검은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친다. 82년생 귀한 옥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2, 48

亥 47년생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 59년생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71년생 만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83년생 정확한 목적의식이 성공의 길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92, 7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88세 초등학생 할머니의 건강비법

장수의 비밀(EBS·밤 10시45분)='머, 리, 에, 구, 멍, 이, 났, 나, 보, 다.'

서걱서걱한 연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한 할머니의 목소리. 무슨 소리인가 하고 따라가 보면, 초등학생용 노트에 한 자, 한 자, 정성껏 글씨를 쓰는 할머니가 나온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88세 박태순 할머니.

열 칸짜리 노트에 서툰 시를 채우고, 틀려서 당황하기도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초등학생이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진짜 초등학생이 맞다고 한다.

2년 전 처음 배운 한글 덕에 다시 마주한 세상.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설레고 새로운 88세의 초등학생 할머니.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박태순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소개한다.

전신 3도 화상 상규의 아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지난 2월10일 모두가 즐거운 설날 당일 땅끝 마을 해남에 사는 4살 상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됐다. 온수조차 잘 나오지 않는 시골집에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가마솥에 끓여놨던 물이 상규를 몸을 덮쳤고, 상규의 몸 46%가 3도 화상을 입게 됐다.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농사일 때문에 75세 노년의 할머니에게 상규의 병간호를 맡겨야 했던 농사꾼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하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에 병원비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규는 벌써 4번의 수술을 했지만 화상의 흔적은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백만 원의 상당의 약값에 엄마, 아빠는 또 한 번 작아진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 올바른 것인가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대책은 20차례가 넘었다. 사실상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이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부동산 정책들의 목표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집값 하락을 방지하거나 끌어올리는 데 있었다. 특히 8·28 전월세 대책은 이름만 전월세 대책일 뿐 사실상 젊은 세대가 빚을 지고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전셋값 폭등이 61주 계속되면서 청년 세입자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정작 청년과 세입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전셋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